

大學의 國際的 責任

— IAU 8 차 총회 參觀記 —

林 基 燁
(建國大 法學科)

I. 머리말

世界大學의 UN 總會로 일컫는 IAU(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世界大學協會) 國際會議가 지난 8월 12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UCLA 캠퍼스 로이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理念과 體制를 초월한 IAU는 미·소 양국의 냉전이 한창 진행되던 1950년 UNESCO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世界大學間의 相互理解와 國際協力 그리고 學問交流를 통하여 世界平和에 이바지할 것을 목표로 발족된 가장 역사 깊은 世界大學의 聯合體로 알려져 있다.¹⁾ 이러한 IAU는 불탄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가 지휘하는 대표적인 世界大學 指導者들의 國際的 모임으로 IAUP(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Presidents—세계대학총장협의회)와는 그 성격과 규모가 다른 것으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世界大學指導者들의 비정치적 단체라고 할 수 있다.²⁾

大學間의 協同과 大學의 國際的 責任을 포방한 이번 IAU 제 8 차 總會는 6일간(8월 12일부터 17일까지)에 걸쳐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전망과

문제를 주제로 다루었다. 매 5년마다 열리는 IAU 총회는 이번에 121개 회원국 중 81개국에 참가하였는데 866개 대학 회원교 중 327개 대학의 세계 유수 대학교육 관계자 543명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世界大學의 國際化에 따른 問題點과 役割을 진지하게 토의했다. 이러한 大學의 國際化를 촉구하는 이번 IAU 총회에는 우리나라에서 건국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가 회원으로 참가했다.

IAU 總會規約에 따라 會議進行이 영어와 불어만으로 허용되어 있는 총회³⁾는 첫날에는 개회식에 이어 기조강연 그리고 “相互依存世界에 있어서 大學의 國際的 立場”이라는 제 1 主題發表와 그룹별 토의가 있었다. 둘째날에는 “大學社會에 있어서 國際的 理解”라고 하는 제 2 主題發表와 “國際間相互協力에 있어서 大學의 役割”을 촉구하는 제 3 主題發表와 그룹별 토의가 진행되었다. 셋째날에는 이미 발표된 각 주제의 내용을 종합·분석하는 Parallel Session 토의가 있었고, 넷째날에는 “미국 대학의 경향”이라는 특별주제가 총회 개최국에 의해 발표되었

- 1) IAU, *Eighth General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Perspectives and Problems for the Coming Decade—*, August 12-17, 198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p. 6. 이하에서는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로 약칭함.
- 2) IAU,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rticle 2 참조: IAU와 IAUP는 엄격히 구별되며 전자가 세계대학의 연합체라고 한다면 후자는 세계 대학총장협의회라고 말할 수 있다.
- 3) IAU, *Eighth General Conference: Proposed Rules of Procedure*, Los Angeles 1985, p. 5 참조.

다. 다섯째날에는 1980~85년도 IAU 경과보고와 1985~90년도 정책방향에 토의되었고, 여섯째날에는 IAU 총재의 선출과 아울러 각국 이사국의 선출을 마지막으로 폐막되었다.⁴⁾

그러면 IAU의 理念과 目的 그리고 그 活動과 役割 그리고 이번 제 8차 總會의 內容과 主題를 우리나라 大學의 國際活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II. IAU의 理念과 目的

1. IAU의 理念

世界大學協議會의 높은 理念은 IAU 憲章 前文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高等教育機關의 研究와 敎育을 통하여 자유와 正義를 구현하고 인간의 존귀함과 단결을 촉진시키며 국제 사정에 적합한 정신적·물질적 협력을 개발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제 2차 世界大戰의 고난에서 보여 준 相互協力的의 절대성과 人間相互依存의 필요성에서 그 理念을 추구하고 있다. 즉 大學敎育은 자유·공산 양대 진영의 냉전에서 나타난 위험성에 대한 안전 장치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분단국가와 세계 각국의 高等教育機關을 통한 단결과 상호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UNESCO는 國家協力的의 次元에서 이러한 理想을 모색하기 위하여 1948년 Utrecht에서 世界大學의 國際聯合을 위한 예비모임을 가졌던 것이다. IAU는 그 2년 뒤인 1950년 Nice 총회에서 드디어 조직되고 UNESCO와의 지휘협력하에 오늘에 이르렀다.⁵⁾

2. IAU의 目的

이와 같이 IAU는 전세계의 大學人들이 大學間의 理解를 증진시키고 大學의 共同問題를 토의하며 大學人의 能力을 발휘하여 전세계인의 人類平和에 기여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IAU는 첫째 大學敎

育의 각종 專門研究 분야에 걸친 國際間의 協力增大와 會員大學間의 相互交流를 강화하고, 둘째 會員大學과 學術團體에 대한 학술 원조 및 세계 도처의 모든 大學敎育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며, 세계 각국 大學間의 共同關心事에 대한 공동연구는 물론, 네째로 위의 學術活動을 통하여 상이한 人間의 傳統과 文化의 相互理解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강한 國際大學社會의 창건을 통하여 世界平和의 근간을 이루는 데 있다⁶⁾고 밝히고 있다.

III. IAU의 現況과 活動

1. IAU의 會員

IAU는 正會員과 準會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83년 6월 현재 會員(membership)은 120개국으로 會員校는 8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世界大學協議體이다. 이들 IAU 會員大學은 비록 地域間 혹은 國際間의 大學協議會 協力下에 움직이고 있으나, 각 회원대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다.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 IAU 참가 대학은 1985년 8월말 현재 121개국의 866개교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12월 한양대가 처음으로 가입된 이래 1981년에는 건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단국대, 인하대, 경북대, 강원대가 가입되었고, 1982년에는 서강대, 숭전대, 이화여대가 가입되었으며 이번 제 8차 總會를 맞아 연세대와 명지대가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12개교가 정식 회원교로 가입하고 있으나⁷⁾ 이번 총회에서는 건국대, 서울대, 중앙대, 한양대 4개교만이 참석했었다. 또한 준회원(associate membership)으로는 지역별 대학협의회기관 혹은 국제간 대학협의기구만이 가입되는 것으로 현재 여덟개의 준회원이 있으며 여기에는 아프리카 대학협의회와 아랍국 대학협의회 그리고 영연방 대학협의회와 동남아시아 대학협의회, 불란서 대학협의회, 가

4) 상세한 내용은 IAU 프로그램을 참조할 것. IAU, *GUIDE for the EIGHTH GENERAL CONFERENCE*, August 11-17, 198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5) IAU,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ies*, 1985, p. 8.

6) *Ibid.*, p. 6.

7) IAU, *Administrative Reports*, 1980, 1981, 1982, 1983, and 1984, p. 22 and p. 36.

불릭 대학협의회, 유럽 대학총장협의회, 라틴아메리카 대학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다.⁸⁾

2. IAU의 組織

IAU는 매5년마다 열리는 總會와 각종 경책을 제시하고 계획을 결정하는 理事會가 있으며, 大學間의 情報과 活動을 수행하는 事務局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IAU 각 機關의 조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總會(General Conference)

總會는 매5년마다 소집되는 것으로 正會員과 準會員이 참가하게 되며 여기에서는 IAU의 정책을 결정하고 總裁와 執行部理事를 선출하게 된다. 각 會員大學은 IAU 총회에 참석할 교수와 연구원 및 학생 대표를 파견할 수도 있으며, 또한 總會는 국제 교육기관이나 지역별 교육기관을 초청하기도 한다. 이러한 총회의 主要案件은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있어서 大學의 役割과 活動 그리고 研究課題를 토의한다. 그 동안 IAU의 모임은 1950년 12월 Nice에서 제 1차 총회가 있었고, 1955년 9월에는 Istanbul에서 제 2차 총회가 열렸으며, 1960년 9월 Mexico에서 제 3차 총회가 개최되었었다. 1965년 9월에는 Tokyo에서 제 4차 총회가 있었고, 1970년 9월 Montreal에서는 제 5차 총회가 열렸으며, 1975년 8월에는 Moscow에서 제 6차 총회가 소집되었고, 1980년 8월에는 Manila에서 제 7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 8차 총회는 미국 로스엔젤레스 UCLA 캠퍼스에서 열렸다.⁹⁾

2) 理事會(Administrative Board)

理事會는 1인의 總裁(Presidents of the Association)와 14명 이상 20명의 正理事(Members), 14명 이상 20명의 代理理事(Deputy Members) 그리고 事務總長(Secretary 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적어도 1회 開催토록 되어 있다.¹⁰⁾

總裁는 1인으로 30개 會員校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으며, 理事는 1개국 1개 大學으로 會員校 15개 大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¹¹⁾ 이번의 제 8차 總會에서는 40개국의 理事가 선출되었으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건국대 원영찬 총장, 일본의 동경대학 와다루모리 총장, 필리핀의 필리핀대학 탁부자라 총장 그리고 중공의 남카이대학 구오 구양무 총장이 이사로서 각각 피선되었다.¹²⁾

3) 事務局(Secretariat)

事務局은 國際大學總局(International Universities Bureau)으로서 IAU 憲章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는 事務總長이 관장한다. 이 事務局은 全世界 각 大學의 高等教育에 관한 새로 개발된 정보를 제공하며 會員大學間의 상호 유대를 위한 업무 수행 그리고 總會와 理事會를 주관하게 된다.

3. IAU의 財政

IAU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會員大學의 年中會費에 의존하고 있다. 각 會員校의 부담액을 보면 1,000명 이하의 學生을 가진 會員大學은 年 500弗을 납부해야 하고, 1,000명 이상 5,000명까지의 學生을 가진 會員大學은 年 700弗을 납부해야 하며, 5,000명 이상 10,000명까지의 學生을 가진 회원대학은 年 1,000弗을 납부하고, 10,000명 이상의 學生을 가진 會員大學은 年 1,300弗을 부담하게 된다.¹³⁾ IAU 年間 總經費는 1983년도에 615,412弗이 지출되었고, 1984년도에는 627,720弗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각종 회의와 간행물의 출판 및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또한 UNESCO는 年間 總 40,000弗 정도의 보조금과 사무비 및 운영비와 시설비 등 기타 활동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¹⁴⁾

8) IAU, *Eighth General Conference: Proposed Rules of Procedures*, Los Angeles 1985, p. 10.

9) IAU,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Unesco House (August, 1983), p. 12.

10) IAU,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1985, p. 12.

11) IAU, *Eighth General Conference: Proposed Procedures for Elections*, Los Angeles 1985, Article 6 참조.

12) *SISA News—Korea Today*, Los Angeles, Vol. 7, No. 10(October, 1985), p. 83, 建大新聞 1985년 9월 2일, 경향신문 1985년 9월 2일.

13) IAU, *Administrative Reports*, Op. Cit., p. 61 and p. 73.

14) IAU,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Universities*, Op. Cit., p. 14.



▲ 가장 역사 깊은 세계 대학의 聯合體 IAU의 제 8차 총회 의장 선거

4. IAU의 主要業務

IAU가 주로 수행하는 임무는 理事會에 의하여 승인된 年中計劃의 수립과 進行 특히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의 발간, 회원교에 대한 각종 자료와 학술정보 제공 그리고 세미나 개최와 라운드 테이블 토의, 각종 회의의 진행과 국제회의 및 지역회의의 협력과 고등교육에 관련된 합동연구 등 대학의 국제적 활동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¹⁵⁾ 또한 IAU의 學術研究課題로서는 世界高等敎育에 있어서 주요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個別的 研究는 물론 學者와 大學間의 協力에 의해 그 目的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Seminar와 Round Table, 기타 Meeting에 의해 진행되기도 한다.

첫째는 국제적 Seminar로서 1971년 10월 Constance 대학에서 “고등교육의 통합문제”에 관한 제 1차 세미나가 있었고, 1973년 1월에는 Malaya 대학에서 “아세아국가에 있어서 大學의 社會的 責任”이라는 주제로 제 2차 세미나가 있었으

며, 1974년 5월에는 Belgrad에서 “大學間의 協力問題”라는 주제로 제 3차 세미나가 있었다. 1977년 2월에는 Alexandria 大學에서는 “大學敎育의 諸形態”라는 주제로 제 4차 세미나가 있었고, 1978년 5월 Halle-Wittenberg 大學에서는 “大學敎育에 대한 올바른 敎育과 接近方法”이라는 주제로 제 5차 세미나가 있었다. 또한 1979년 2월에는 Lomé에서 “開發途上國家에 있어서 大學의 役割”이라는 주제로 제 6차 세미나가 있었고, 1982년 9월에는 Zagreb 大學에서 “人文科學에 대한 科學的 및 專門的 變化와 그 影響”이라는 주제로 제 7차 세미나가 있었으며, 1984년 9월에는 Tashkent에서 “大學과 地域發展”이라는 주제로 제 8차 세미나가 있었다.¹⁶⁾

둘째는 Round Table로 會員大學間에 있어서 大學政策을 수립하기 위한 諸問題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제 1차 會議은 1977년 4월 Kyoto 大學에서 개최되었고, 제 2차 회의는 1978년 4월 Pennsylvania 大學에서 열렸으며, 제 3차 회의

15) *Ibid.*, p. 7; IAU, *BULLETIN*, Vol. XXXIII, No. 2 (1985), pp. 115~125.

16) IAU,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Op. Cit., pp. 14~17 참조.

는 1979년 5월 Sofia 大學에서, 제 4차 회의는 1982년 Delhi 大學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또한 1983년 4월에는 “大學敎育의 將來”에 관한 주제로 Mid-term Conference 가 Munich 大學에서 열렸다.¹⁷⁾

IV. IAU의 第8次 總會 主題內容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캠퍼스 로이스 홀에서 매일같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려 7~8시간에 걸쳐 진행된 각종 회의와 토의 그리고 주제발표는 한마디로 大學間의 協力과 大學敎育의 國際化를 모색하는 모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總會 基調演說에 나선 스탠포드大學의 Donald Kennedy 총장은 “美國에 있어서 모든 研究結果의 3분의 2는 大學內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大學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그는 오늘의 大學은 個人的 敎育뿐만 아니라 社會改革을 위한 원천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러한 대학의 目的은 國際間의 協力에 의해서만이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世界大學의 國際的 責任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IAU 제 8차 총회에서 제기되었던 大學의 國際的 責任과 대학의 국제적 理解 그리고 대학의 국제적 役割에 관한 主題發表의 內容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大學의 國際的 立場(제 1주제)

UN 大學의 Soedjatmoto 총장에 의해서 발표된 “相互依存世界에 있어서 大學의 國際的 立場”이라는 주제는 전통적 대학과 현대적 대학의 사명과 책임을 종합·분석하여 大學의 視點과 立場을 설명해 주었다. 즉 大學이란 전통적으로 知識을 탐구하고 전수하는 것이 일반·보편적이었으나 국가의 발전, 사회의 변천과 더불어 오늘날 모든 大學은 전통과 역사를 달리하면서 국가적 필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세계의 중요한

문제는 國際的 協同과 大學間의 協力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世界 社會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모든 大學은 이러한 國家的 關心과 社會的 要求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의 개발에 있어서 대학의 공헌은 바로 세계 모든 人類의 平和와 福祉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大學의 노력으로 국가적 필요와 실천에 헌신할 수 있는 인문과학이나 자연과학 그리고 모든 전문분야에서의 연구 개발과 敎育과정의 강화가 요청되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은 광범한 국제관계에서 모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東·西洋間의 유대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접근시키는 근원적 지식의 개발 그리고 세계적 입장에서 국제문제의 분석과 해결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⁸⁾

2. 大學의 國際的 理解(제 2주제)

“大學社會에 있어서 國際的 理解”를 촉구한 제 2주제 발표에서 學者와 學生을 위한 大學社會는 國際的 特性과 要求에 충족될 때 비로소 그 使命과 권위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오늘날 불화와 적대 그리고 긴장의 세계에서 여러 문화권의 교호작용을 위한 특별한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大學은 상호협력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敎育과 敎育의 교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오늘의 大學은 他國家間에 있어서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各國간의 다양한 여러 문화는 인간의 지식을 선진화하고 국제적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장벽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화의 상호교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다.¹⁹⁾

3. 大學의 國際的 役割(제 3주제)

“國際間相互協力에 있어서 大學의 役割”을 중요시한 제 3주제 發表에서는 대학은 科學과 技術 그리고 經濟와 文化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주

17) Ibid.

18) 보다 상세한 주제내용은 第8次 IAU 總會에서 발표된 간행물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Universities in an Interdependent World*를 참조할 것.

19) *International Understanding in a University Setting*을 참조할 것.

도적 역할을 하며, 인류의 장래와 주위 환경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大學이 현실적으로 그의 國際的 相互協力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날 날로 증대되고 있는 會議的 世界에서 국제적 이해와 대화의 중심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國際間에 相互協力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노력은 國家間에 있어서 學者와 學生의 交流關係를 증대하고 外國大學이 이루어 놓은 研究結果로부터 풍부한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國際大學間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한다. 또한 오늘의 대학은 모든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人間의 知識을 더욱 개발하여 국가간·문화간·경제간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교류시킬 수 있는 광범한 분야에 걸친 공동연구와 전문적 훈련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²⁰⁾

V. 맺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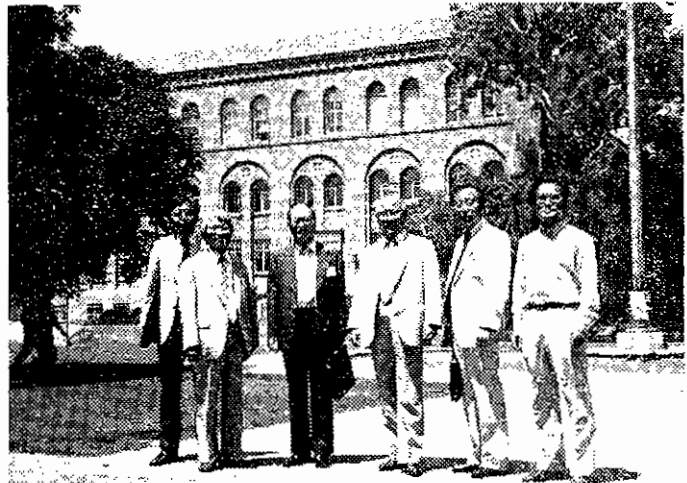
第8次 IAU 總會는 우리나라의 KBS와 VOA 그리고 많은 언론기관들이 현지 취재를 하는 등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킨 가운데 열린 비정치적 大學團體의 國際會議로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世界大學의 國際化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의 IAU 총회는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문제점과 전망을 내세워, 大學의 國際的 責任을 폭넓게 조망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었다는 점에서 참으로 뜻 깊은 국제회의였다고 본다. 아시아지역 한국 대표 이사로 피선된 건국대학교 권영찬 총장은 로스엔젤레스 시사지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교육자들의 국제적인 모임에 앞으로 한국의 대학들이 적극 참여해야 하며, 30여 개나

되는 종합대학이 힘을 합쳐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전력할 필요가 있다²¹⁾고 회의 참석 소감을 피력하면서 이러한 세계 대학간의 모임과 협의는 문화의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도 국위 선양이 됨은 물론 지식의 교류라는 세계체를 통하여서도 앞으로의 世界平和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IAU 총회를 처음부터 주의 깊게 지켜 본 필자로서 韓國 大學의 國際化 時代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몇 마디 부언하고자 한다.

1. 韓國 大學의 姿勢

이제 韓國 大學이 世界 속의 대학으로 도약할 시대가 되었다고 본다. IAU는 가장 권위 있는 世界大學의 聯合體로서 우리 韓國 大學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념과 체제를 초월한 121개국 866개 대학 가운데 일본의 31개 회원교가 참여했고 필리핀이 14개 회원교를 파견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겨우 4개교만이 총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대학의 국제적 안목이 좁고 국제화시대에 뒤떨어진 감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



▲ 韓國측 참가자(좌로부터 中央大 이상운 교수, 建國大 임기업 교수, 漢陽大 한상준 총장, 建國大 권영찬 총장, 서울大 강신택 교수)

20) *The Role of Universities in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를 참조할 것.

21) *SISA News—Korea Today*, Los Angeles, Vol. 7, No. 10 (October, 1985), p. 83.

22) 建大新聞 1985년 9월 2일 7면.

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남북대화가 성숙해지고 있는 즈음에 북한의 김일성대학이 IAU의 회원교로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²³⁾ 앞으로 남북 대학간의 치열한 국제적 경쟁을 간파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제9차 헝싱키總會를 앞두고 앞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강력히 행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IAU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물론 보다 많은 한국 대학의 가입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고 본다.

2. 韓國 大學生의 自省

우리 韓國 大學生들은 國際化 時代를 향한 세계 속의 대학생으로서 이제 실력 배양에 정진해야 된다고 본다. 금년은 UN이 선포한 '국제청소년의 해(International Year of the Youth)'이기도 하며, 이번 IAU 총회 기간을 로스앤젤레스시는 '국제학생주간(International Students Week)'으로 선언했으며, 세계 도처에서 모여든 수많은 대학생들이 USC(남가주대학)에서 IAUS(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y Students—세계대학생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기도 했다. 이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우리 대학생들은 학원의 정상화에 앞장서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진리 탐구와 실력 배양을 통하여 우

리 大學生들도 國際化活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世界平和를 위한 國際的 責任을 감당해야 할 우리 大學人의 공동과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3. 世界大學의 國際化運動

이번의 IAU 주제발표는 大學의 國際的 協力和 大學의 國際的 役割을 다룬 世界大學의 國際的 責任을 정립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大學은 전통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大學間의 協力和 相互努力이 강조되고 세계의 다양한 여러 문화권의 교호작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공동연구가 요청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IAU 총회는 이러한 大學間의 國際協력을 통하여 世界人類의 복지와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고 결론 지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大學의 國際化에 따른 교육의 정비와 새로운 지식의 개발 그리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그 동안 우리나라 大學이 國際社會의 부단한 변화에 우둔했던 수동적 자세를 반성하고 世界大學의 國際化에 적극 참여하는 능동적 자세로 대처해 주기를 당부하고 싶다. *

23) IAU, *Administrative Reports*, Op. Cit., p. 50.